

보도시점 (인터넷) 2026. 9. 22.(화) 11:00
(지면) 2026. 9. 23.(수) 조간

배포 2026. 9. 22.(화) 06:00

황종우 해수부 장관, 2028년 UN 해양총회의 성공 개최 기반 마련 위해 UN 총회 참석한다

- 제2차 해수면 상승 고위급 회의 참석 및 해양 범죄 대응 고위급 행사 기조연설 등

해양수산부는 2028년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해 황종우 장관이 9월 22일(화)부터 본격 개최되는 제81차 UN총회 고위급주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UN총회 고위급 주간은 매년 9월 193개 UN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기후변화, 지속 가능 발전, 평화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황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행동 촉구, ▲AI 기술·위성 등을 활용한 해양 범죄 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UN 해양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심과 참여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9월 24일(목) UN총회 의장이 주재하고, UN사무총장과 30여 개국 정상급 등이 참석하는 ‘제2차 해수면 상승 고위급 회의’에 대한민국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도서·연안 공동체의 생존과 문화·유산, 정체성을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UN 선언을 지지하고, 우리나라의 해양관측 및 재해 대응 등에 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사회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해수면 상승 위협 대응을 위한 연합(C-SET)’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가 해수면 상승 위기 최전선에 놓여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기회임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 '23.9월 제78차 UN총회 계기로 해수면 상승 위협 대응을 위해 출범한 12개 UN회원국 연합

이에 앞서 9월 23일(수) 황 장관은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주최하는 해양 범죄 대응을 위한 고위급 행사에서 기조연설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영역 인식 체계인 K-MDA(Korea-Maritime Domain Awareness)** 등을 활용한 불법조업 선박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여 AI, 위성정보,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 전 세계 불법 마약 유통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고, 국제 테러, 부패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UN 산하 국제기구(UN Office on Drugs and Crime)

** 해양 위성, 정보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해양 안보, 안전 등 위협 요소를 미리 탐지·식별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광역 감시·정보체계

아울러 글로벌 기업과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 해양총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교섭 및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9월 22일(화)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고위급 교류 행사에 참석하여 국내 기업과 시민사회가 UN 해양총회를 계기로 세계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새로운 협력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UN 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 공식 등록 예상 인원은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2만 명*이며, 전시·체험 행사 등 일반시민을 포함한 규모는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작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3차 UN 해양총회」의 공식 등록 인원은 정상급 인사 60여 명을 포함한 15,000여 명이며, 일반시민 포함 시 13만 명이 참여

한편,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밸러리 히키(Valerie Hickey) 세계은행 글로벌 환경국장과 해양수산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세계은행은 3억 달러 규모의 해양 전용 기금(PROBLUE) 등을 통해 100여 개 국가·지역에서 해양 분야 사업을 수행 중이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 ▲해양·연안 생태계 보전·관리, ▲해양오염 예방, ▲해양 전용 기금과의 연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날의 해양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UN 총회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험과 해법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해양 행동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028년 UN 해양총회는 과학과 금융, 국제사회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유엔해양총회준비기획단 기획총괄팀	책임자	팀장	이상길 (051-773-6802)
		담당자	서기관	김지현 (051-773-6803)